

LME, 2005년부터 합성수지 거래

싱가폴 · 미국 · 벨기에에서 로드쇼 ... PP 및 LLDPE 첫 상장 예정

영국 LME(London Metal Exchange)가 2005년 미래 플라스틱 계약 런칭에 대비해 국제산업 브리핑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LME의 플라스틱 로드쇼는 2004년 10월20일 싱가포르, 11월17일 미국 휴스턴, 11월19일 시카고, 11월23일 벨기에 Antwerp으로 이어지며 2005년 5월27일부터 LME는 PP(Polypropylene) 및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거래를 개시할 계획이다.

LME는 로드쇼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기업, 가공기업, 수요기업 및 도매상들에게 미래의 거래기술 및 미래 플라스틱 계약을 통해 가격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알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ME는 또한 Liz Milan을 운영관리자(Operation Manager)로 임명했는데, Milan 운영관리자는 2005년 1월3일 합류하게 되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플라스틱을 포함한 물리적 사업(Physical Operation)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Milan 운영관리자는 전 Mike Cotterill을 대신하는 것으로 Mike Cotterill은 2005년 중순 장기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Milan은 금속거래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며 최근 Semptra, Entron 및 Uvisco에서 상임 거래위원직을 역임했다.

Heale 대표는 물리적 사업 및 도매업(Warehousing)을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고 있으며 Milan 운영관리자의 경험과 재질을 바탕으로 LME가 계약부문에서 사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20>